

## 상처뿐인 영광

### 「학력사항」

- 부경대학교 명예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기고등학교



유 홍 수

### 「경력사항」

- 현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 새누리당 상임고문
-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
- 제12대, 제14대~ 제16대 국회의원
- 교통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정무제2수석비서관
- 제21대 충청남도 도지사
- 제6대 내무부 치안본부 본부장
- 제14회(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 I. 고시의 의미

고시는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나는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고시를 선택했다. 그러나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고시를 선택한 '나'와 그 선택을 강요한 '나의 주변'을 슬퍼한다.

나와 나의 주변이 슬픈 까닭은 이 고시라는 단순한 인사제도에 전세기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슬한 희비를 부각해야 하는 우울한 현실이 바로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인 우리의 서글프고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모든 청춘의 향락을 제척하고, 오직 고시만을 위하여 생명을 도(賭)해 피골이 상접했던 나의 어제와 그리고 오늘의 그 많은 수험동지들이 바로 그 증인이 아닌가! 결국 나대로의 고시의 의

미는 양상 레짐(ancien régime)적인 후진사회의 슬픔이라고 낙착되지만, 고시가 슬픈 것은 이것 때문 만도 아니다. 그 많은 '기도의 시간'에서 쏟아야만 했던 피와 눈물, 참아야만 했던 울분과 비굴, 당해야만 했던 냉대와 배신, 이런 신심양면의 상처 속에서 분노와 침묵을 키우며 합격은 이루어진 것이니 고시합격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라 칭할 수 있다면 나의 경우 이 건 분명히 '상처 뿐인 영광'이라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상처 만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준비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시련은 우리에게 인생과 철학을 가르킨다. 또한 고시가 (그 제도의 시비는 어떻든 간에) 한국적 사회에서는 관계(官界) 진출을 위한 비약에의 첩경임엔 틀림 없다. 제도 자체의 시비는 원시적인 차원의 문제요, 우리는 현재 피동의 입장에서 현실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끝끝내 고집하던 나의 그 길고 쓸쓸했던 회색의 여로도 마침내 종착역에 오고야 말았다. 이제는 미친 듯이 방황하는 고시란 이름의 몽유병은 깨어났다. 몽유병이 남긴 온갖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 발병과 치료에 이르기까지를 솔직 담백하게 더듬어보려 한다.

## II. 출발, 연패, 승리

### 1. 분노의 출발

소박한 소시민인 나의 집은 가난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 않았다. 가난이 이유가 되는 후퇴는 결코 있을 수 없었다. 무엇이든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나의 생리다.

그러므로 생래적으로 복을 상속받은 '행복한 그들'이 호방한 유흥에 젖을땀 나도 흥내를 내었고, 학생운동을 할때 나도 앞장을 섰고, 계절의 밀어 속에서 젊음을 구가할때 나도 멋진 낭만을 대학가에 남겼다. 그러나 나의 집은 가난했다. 때문에 이렇게 지지 않겠다는 오기 속에서도 이상과 현실이 평행하는 나의 이 서글픈 '착오의 신분'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성이 싹틈으로부터 시작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강렬한 반항은 마침내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와 바뀌었다. '행복한 그들'에 대한 분노, 사회제도에 대한 분노는 기어코 나를 서울법대로 진학시켰고, 그것은 필연으로 고시와의 직결을 초래했다. 이렇게 나의 고시의 출발은 '어떤 분노'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따지고 보면 결국 '착오의 신분'을 탈피하기 위하여 '적과 흑'을 향한 나의 눈물겨운 노력의 일단이었던 것이다.

### 2. 연패 3년

이미 고교에서부터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나는 고시라는 것도 별로 힘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의 투지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당초 나는 사법과를 시작했다. 변호사라는 생활의 기술을 우선 마련해 놓고 '살아가는 맛'을 마음껏 맛보고 싶었던 것이다. 2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위하여 강의를 전폐하고, 시골 외가집에서 공략의 진을 쳤다.

그러던 중 1년 만에 같이 시작했던 심우(心友) 박찬중 형이 고대생으로 당당히 12회 사법과에 개가를 올렸다. 무한한 자극과 긴장이 내게 주어진 그의 합격이었다. 전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사정은 내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 않았다. 가정교사를 해야 했고, 개인회사·출판사 등을 전전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꾸준히 마음놓고 공부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이렇게 맞은 13회·14회엔 모두 패하고 말았다. 이젠 고시에 KO당하고 만 것이다. 또한 고시만에 전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둘 첨가되기 시작했다. 졸업은 닥치고, 건강은 말이 아니니, 성격은 비틀어지고, 하늘을 찌를 듯 한 패기와 우월감은 삼시간에 열등감으로 바뀌고, 유일한 무기였던 '자신'마저 잃고 말았다. 초조해하시는 부모님, 포기를 권유하는 사람, 괴박해지는 자존심, 그러나 이렇수록 '오냐! 두고보자'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시와의 평생 투쟁을 결심하며 독을 품기 시작했다. 방향을 행정과로 돌렸다. 사법과보다는 신선감이 있으므로 고시의 만성증을 제거하여 새로 출발하는 기분을 가지려는 것이었다. 또한 14회로서 행정과의 마지막설도 있었으므로 다시 기회가 없는 행정과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금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비상태세를 취했다. 당시 모든 것이 한계상황이었던 나는 그 준비에 있어서도 극히 악조건 속에서의 육탄의 한계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제학의 오발탄으로 기대를 잃고 장기전을 결심하고 모(某) 신문사에 다니면서 그 방법의 연구에 부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0월 27일 아침 내무부의 최휴섭 형(13회 양과)으로부터 조그마한 보람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 3. 승리와 교훈

생각하면 나의 합격은 온갖 각고(刻苦)와 시련의 매도(罵倒)를 겪은 오랜 난산이었다. 나는 지금 승리에 도취하기 전에 이 조그마한 결실을 위하여 왜 이다지도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나의 그 슬픈 실패는 인간적인 성장을 위하여 인생과 사회를 보는 스스로의 철학을 세워 주었고, 나의 그 화사한 성격을 적나라하게 껍질을 벗겨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케 했다. 또한 고시산(高試産)이 되어서는 아니될 보다 큰 대기에의 폭과 바탕을 내게 방향 지워 준 것도 역시 그 많은 실패의 교훈이다. 고시합격 그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대단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살아갈 자신의 무기, 신념·인내·투지 등을 연마하고, 한 번 자기 자신을 이런 각도에서 시험하고 분석해 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 Ⅲ. 나의 실패담과 수험기술

### 1. 나의 실패원인

내가 많은 실패를 갖게 된 몇 가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너무 일찍 시작하여 실력없이 응시하다가 끝에 가서 맥이 풀렸다는 것이다. 재학생의 경우 고시준비라는 관념없이 강

의에 충실하다가 몇 개월 집중적인 준비를 할 것이다. 둘째, 꾸준히 못했다. 시험이 끝나면 막연한 기대 속에 세월을 보내다가 다음 공고가 나서야 시작한다. 이래서는 안된다.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땐 꾸준히 하는 것이다. 실력은 절대적인 대전제이다. 고시엔 '요행수'가 없다. 셋째, 책이 충분하지 못했다.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 회 고시위원의 교과서 및 수험잡지는 사서 보아야 한다. 이상을 참고하면서 우선 실력이 있고, 좀 끈기있게 하면서 적당한 요령만 있으면 합격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2. 제1차시험

무시할 것이 못된다. 1차시험 해당 과목은 평소 1차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야겠지만, 시험 전 20일 내지 30일은 순전히 1차준비를 할 것이다.

### (1) 교과서의 정독

### (2) 조문의 암기

헌법 정도는 전부, 형법총칙도 전부, 각칙도 중요한 것 및 민법의 중요한 조문도 모두 암기할 것이다. 경제학은 조문이 없지만 중요한 술어정의, 학설, 학자 등은 외워버리는 것이 좋다.

### (3) 문제집의 활용

교과서만으론 불충분하다. 문제집으로서 자기의 응용력을 연마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교과서에서 습득한 지식을 1차시험을 위하여 단련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토막지식의 암기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던가 혹은 원칙에 대한 예외 기타 특수한 토막지식을 노트에 발췌하여 외워버릴 것이다.

### (5) 요령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한다던가 또는 해답이 다른 문제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 등등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판단하는 재치가 필요하다.

## 3. 제 2차시험

### (1) 중점적인 학습

요행을 점치며 요약식 공부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해가 되어 있으면 2차시험에서는 중요하고 나을법한 곳에 중점적으로 파고 들지 않으면 안된다.

출제율이 높은 문제는 모든 참고서를 참고하여 자기대로의 연구를 해두면 특색있는 답안

작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해도 없이 몇 개 만을 뽑아 하는 식의 준비는 아예 하지 말 것이다.

## (2) 서브노트의 작성

문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중요한 문제, 논문은 물론 외국 서적까지 동원하여 나대로의 내용을 새로 갖추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지식이 확실화 되고, 또 시험장에서 잠깐 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독서 방법은 다독주의였다.

## (3) 답안의 외관미

내용은 물론이지만 외관미에 특별한 주의를 했다. 나의 경우 답안의 한쪽 3cm 가량을 곱게 공백으로 남기고 썼다. 격서는 하지 않았고, 제목이 바뀔 때마다 균형있게 적당히 띄어 썼다. 어쨌든 천성이 악필이므로 알아보기 쉽게 하느라 한 것이다. 그러나 악필이지만 비교적 빠른편이므로 답안지는 앞뒤 다 써서 6매 거의 다 채웠다.

## (4) 특색있는 제목

고시위원은 답안의 내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에 먼저 눈이 간다. 그러니 비록 똑같은 내용을 쓸지라도 제목은 특색있게 정하여 고시위원의 주의를 끌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번 '행정상의 손해배상'은 극히 예상률이 높은 것으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평범한 문제일수록 답안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나 역시 김도창 교수의 교과서 정도의 지식 밖에 없었지만, 대제(大題)·소제(小題)를 특수하려 애쓴 탓인지 74점의 좋은 점수가 나왔었다.

## (5) 서론과 본론의 처리

고시의 답안도 하나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논리적인 체계가 있는 것이다. 고시답안에 있어서의 서론 부분은 출제된 문제의 지위를 밝히면서 본론에의 길을 여는 것이다.

나는 여하한 문제든지 서론에서 그 문제의 체계상의 위치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간결히 압축 표현하고, 본론은 문제의 미시적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밝혀 주었다. 그러나 절대로 '서론'이라든지 '본론'이라고는 제목을 쓰지 않았고, 그때 그때 적당한 제목을 알맞게 붙였다. 나의 경우 이번 정치학과 행정학은 준비가 부족했지만 서론부의 인상이 좋아서 괜찮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안다. 예컨대, 행정학의 '직계제를 논하라'는 문제에서는 서론부를 '인사제도론에서의 직계제의 지위'라는 제목 하에 이를 다시 ① 인사제도의 변천, ② 인사행정의 과학성, ③ 직계제와 고과제의 관계 등으로 세분하여 별 특별하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썼다. 2문의 현대행정의 특징에 있어서도 문제를 거시적으로 보아 행정학 책 전부를 간결히 요약하는 식으로 썼다. 물론 제목 선정엔 세심한 주의를 했고, 또 소제목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을 택했었다. 제목도 없이 너절하게 늘어놓는 것은 머리가 정리되지 않음을 뜻하는 고로 고시위원의 심증상 불리하다.

#### (6) 기본서

기본서에 관해서는 많은 선배의 소개도 있었고, 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기에 내가 사용한 책만 옮겨쓰는 정도로 한다. 단, 가급적이면 그 회 고시위원의 책은 한 번쯤 보고 응시함이 좋을 것이다. 잡지는 고시계를 꼭 보았다.

고시위원의 논문을 보기 위해서 잡지는 꼭 볼 것이다. 나는 잡지의 논문을 쫓아서 해당 과목별로 모아 철을 해두었다. 여기서 특히 고시계사에 원하고 싶은 것은 교수들의 연구논문을 많이 게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에서 얻지 못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 특수한 답안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IV. 고시와 양심

이상은 간단히 나의 준비소감이었지만 이 자리에선 몇 마디 평소 하고 싶던 말을 할까 한다. 나는 적어도 고등고시라는 시험에 있어서는 '고시양심'이라 칭할 수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고시 응시자의 양심이다. 어쨌든 현재 고시는 국가 최고의 시험이다. 이런 시험에 응함에 있어 유희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좀 더 양심적인 자신감을 갖고 꼭 합격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난삼아 진지한 노력없이 응시한다는 것은 타 응시자를 경멸하는 것이며, 고시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고시 합격자의 양심이다. 합격자는 다 느끼는 것이지만 고시라는 것이 별 대단스런 영광도 아니며,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라는 것도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가 부여한 우연하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따금 합격자의 오만과 불손을 볼 때가 있다. 인간적인 수양이 고시와 더불어 종종 논의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기의 행운에 감사하면서 겸손할 수 있는 태도가 합격자로서의 양심의 길이 아닌가 싶다.

셋째는 고시위원의 양심이다. 고시위원은 국가 최고시험의 위원이라는 자각은 물론이고, 위원들의 출제와 채점 여하에 따라서 수많은 청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편견적인 출제, 괴팍하고 자의적인 채점의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젊은이가 소리를 죽이며 흐느끼고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실한 출제와 성실한 채점,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여 고시위원의 양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 V. 맺음말

이상으로서 보잘 것은 없으나 거짓이 없는 나의 고시열차의 회색여로를 살펴 왔다. 여로의 종착역엔 포근히 여독을 풀어주는 푸른 표시의 광장이라도 있을까 했으나 플랫폼의 개찰구는 여전히 초라하고 그늘진 것이었다. 오히려 그 동안 고시 때문에 매어두었던 내 눈엔 가난하고 불쌍한 내 나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맨 처음 당시의 '어떤 분노'는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 또 하나의 '출발'을 약속해야만 할 것 같

다. 수험 동지들이여! 우리는 분노를 아는 젊음이야 되어야겠소. 불합격의 슬픔보다 불합격의 분노를 가져야 하오. 분노는 젊음의 상징이요, 패장은 말없이 분노의 칼을 닦아야 하오. 기어코 기다림의 보람은 오고 말 것이니!

이제 이 수험기를 끝내면서 전기 박·최 양형을 비롯하여 기본서를 물려준 사법대학원의 조우현 형, 물심양면의 도움을 준 아우 전병무 군, 슬한 실패에도 격려를 보내주신 한가람과 한가람의 어머님들에 충심으로 고마운 정을 표하며, 변함없는 성실을 약속한다. 또한 친척 분들과 형, 오빠의 성공을 빌던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에게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준비 도중 같은 산사에서 동고동락하던 이종철 형과 이성배 선생님의 차기합격을 믿고 바라면서 이 조그마한 “결실”을 존경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슬하에 드린다.